

張介賓의 『醫易義』 연구

- 세계관(世界觀)을 중심으로 -

金時杓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

The Summary of Zhang Jie Bin's 『The Meaning of Medicine and Changes』

Zhang Jie Bin had a lot of influences on the oriental medical world to write *Lei Jing*(類經) and *Lei Jing Tu Yi*(類經圖翼). His oriental medicine is based on profound philosophy. In this thesis, he understand the thousand year of chinese philosophy of ancient times in the reign of Song, Yuan, and Ming dynasty and his view of the world which is revealed in Oriental Medicine is regarded as Qi(氣) and then Li(理) is considered not an object for a special purpose but an attribute of Qi(氣). The base which a debater is able to suggest like this is that because of his saying that Tai Ji(太極) is Yin and Yang(陰陽). The basis of his world is Qi Yi Yuan Lun(氣一元論) of Yin Yang Wei Fen(陰陽未分)

Key Words : *Lei Jing*(類經), 세계관(世界觀), Qi Yi Yuan Lun(氣一元論), The Meaning of Medicine and Changes(醫易義), Tai Ji(太極), Yin and Yang(陰陽)

접 수 : 2000년 9월 19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김시표,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063-850-6935, haknong@gaebyok.wonkwang.ac.kr)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緒論

金元明의 시기에 『易』으로써 한의학을 논한 것은 유완소의 음양학설에 대한 분석, 李杲의 『易』으로 藥을 논한 것, 주진형이 『易』으로써 의학을 논한 것과 또 醫와 『易』은 같은 근원이라고 한 명대의 손일규의 의역론, 조현가의 역리학설로써 명문학설을 창조한 것과 음양과 상화를 논한 것, 장개빈의 『醫易義』. 그리고 청대의 장남의 역이론, 소동진의 『의역일리』, 당종해의 『의역통설』 등과 함께 의학과 역학이 혼용하여 발전된 업적들이다.

장개빈은 『醫』, 『易』의 관계가 음양학의 측면에서 볼 때 거의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천지의 도가 음양 두 기운으로 만물을 조화하고 인생의 이치는 음양 두 기운으로 백해를 자라게 하고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易』은 바뀌는 것이며 음양 동정의 신묘함을 갖추었고, 의학은 뜻이니 음양 소장의 주요(樞要: 機)에 합치 된다. 비록 음양이 이미 내정에 갖추어 졌다 하더라도 변화는 주역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또한 天人은 하나의 이치니, '하나'는 이 음양이니 의학과 『역』이 근원을 같이 하는 것은 이 변화를 같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음양과 의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였고 엄밀하고 명증성이 있는 의학이 되기 위하여는 역학을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장개빈의 의역학은 『유경도익』에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개빈 醫易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醫易의 학적 체계에 의하여 그의 醫易學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2. 예비적고찰

氣論과 理氣論의 근원은 역사적으로나 종류별로나 복잡 다단하다. 여기서는 명대의 氣論 理氣論을 소개함으로써 그 학적체계를 이해하여 장개빈의 『醫易義』를 이해하고자 한다.

1) 太極

대체로 '태극' 또는 '무극이태극'이란 말은 역학에 한하여 사용한다. '역유태극'이란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예이다. 동양철학에서 天理, 一, 理, 氣 등을 역학에서는 태극 또는 무극이태극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2) 氣論

중국의 전통적인 「氣」는 「관자」 내업의 精氣와 「장자」 지복유의 「하늘이 그 정을 낳았다(天出其精)」는 精 곧 精氣와 관계가 있다. 또 순자에서 「水火에는 氣가 있으나 생명이 없고 草木에는 氣와 생명이 있으나 知覺이 없다. 금수에게는 氣와 생명, 知覺이 있으나 의리(義)가 없다. 사람에게에는 氣와 생명과 知覺과 의리가 있다」(순자, 왕제)고 하여 모든 것은 「氣」를 본질로 하였으며, 왕충은 「천지가 기를 합하니, 만물이 저절로 발생했다」(논형, 자연)고 했으며, 장재는 「태허는 형태가 없고, 기의 본체이다」(정몽, 태화편)고 하였으며, 심약수는 「우주간에 단지 하나의 기가 가득하고 유행하여 道와 함께 體가 된다」(명유학안, 감천학안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명대의 吳廷漢의 기론을 소개하여 태극을 기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오정한은 기를 「천지만물의 할아버지」, 「元氣」, 「太極」이라고 하여 기일원론을 주장하였다.

「천지의 시초는 하나의 氣일 뿐이다. ……道라고 하는 것이 달리 하나의 존재가 되어 그 사이에서 아울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의 혼륜이 천지만물의 할아버지가 된다. 지극히 높아 그 位가 없고 지극하여 더할 것이 없으니 太極이라고 했다.」

「대개 상천의 일은 다만 氣이다.」(오정한집)

「태극은 음양이다.」(상동)

「대개 태극은 하나의 기일뿐이다.」(상동)

「대개 태극은 이 기의 지극한 것으로서 더할 존칭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의 「氣」는 음양이며, 태극이다. 태극 곧 理라고 하는 朱子와 달리 태극이 곧 음양이라고 한다.

그는 理에 대해서는 「理는 氣의 條理이며, 用은 氣의 모용이다」(오정한집). 「理는 氣의 조리이다」(상동)라고 하여 理를 氣의 속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대개 氣의 시초는 혼돈한 것일 뿐이다」(오정한집)고 하여

본래의 氣는 Chaos였으나 그 Chaos가 스스로 條理를 형성했다고 본 까닭에 「理는 氣의 條理다」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道와 氣의 관계에서 다른 주자론자들처럼 「道亦器, 器亦道」의 원칙을 지킨 까닭에 「氣即道, 道即氣, 天地之初, 一氣而已矣」(길재만록권상)라고 했으니 천지에 내재한다는 氣論이 된다. 그는 또 「氣에는 맑은 것, 탁한 것, 아름다운 것, 추잡한 것이 있다」라고 하여 천지만물의 차별상은 氣에 원인이 있음을 말했다. 그는 우주의 발생과정에 대하여 「태극은 처음 음양을 발생한다. 양은 가볍고 맑아서 위로 떠서 하늘이 되고 음은 무거워 아래로 응결하여 땅이 된다. 이것이 兩儀며, 一氣의 분열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 氣화의 시초는 참된 精이 응결하고, 形化한 뒤에는 바로 氣가 감동하여 발생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氣의 운동에 氣化와 形化가 있다는 것이다. 「대개 하나의 氣가 유행 수축발전하여 溫涼寒暑로 분별이 있게 되어 봄이 되고 여름·가을·겨울이 되며 우레·번개·바람·비가 되는 것은 모두 氣화의 작용이다」(숙기, 권하)고 하였다. 以上에서 그는 시종일관 우주내 萬事萬化는 모두 氣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유명종 중국근세철학사 321 이문출판사)

여기에서 보면 氣論의 본체는 오정환과 같이 氣一元論이나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경우와 氣一元論이면서 그 물질의 성질이 없는 一元氣가 있다. 경약의 우주의 본체는 물질의 성질이 없는 一元氣라고 할 수 있다.

3) 本原論

陳淳은 理氣관계에 대하여, 먼저 태극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태극은 단지 理이다. 理는 본래 圓이므로 태극의 體는 渾淪하다. 理로 말하면 末에서 本으로, 本에서 末로, 一聚하고 一散함에 그 지극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만고의 전부터 만고의 후까지 端도 없고 始도 없다. 이것이 혼란한 태극의 전체이다. 그 沖漠無朕으로부터 천지만물까지 모두 이에 말미암아 나오며(出) 천지만물도 이미 이에 말미암아 출현하여 다시 沖漠無朕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혼란한 무극의 묘용이다. 성인 의 一心은 혼란한 태극의 전체로되 酬酢萬變이 태극의 유행하는 묘용 아닌 것이 없다. 이제 학문공부는 모름지기 만사만물을 좇아 관통하여 하나의 혼란한 大本을 이루며, 또 혼란한 大本中에서 散하여 만사만물이 되니

조금도 窒礙함이 없도록 한 후에 실체의 혼란지극함을 나에서 얻는다면 大用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우주의 大本은 혼란한 태극이요 성인의 一心 역시 그러하므로 天人合一이로되 이러한 실체를 내가 체득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요, 공부라고 하였다.

「太極은 단지 천지만물의 理를 통털어서 말한 것이므로 천지만물의 바깥으로 유리될 수 없다」하고 「道理의 二字는 또한 분별해야 한다. 만고를 통행하는 것은 道요 만고에 불변한 것은 理이다.」 혹은 「命字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理로써 말하는 것과 氣로써 말한 것이 있으나, 그 실은 理가 氣 밖에 있지 않다. 대개 二氣의 유행은 만고에 生生不易하므로 이것은 공허한 氣가 아니며, 반드시 이것을 주재하는 것이 있으니, 理가 이것이라 한다. 그러나 理는 氣를 떠나 있지 않고 단지 氣에 나아가서 하나의 理를 지적해 내니, 氣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하였다. 理氣의 不相離를 강조하고 「就氣上指出箇理는 氣에서 理를 인식하므로 理氣不相離라 한다. 그러나 理는 氣의 주재자이다.(유명종 중국근세철학사 161 이문출판사)

여기에서 보면 진순의 관점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理이며 氣上에 나아가서 理를 지적해 내는 것이니 율곡의 理氣渾淪無關說과 유사하다. 또 다른 양태는 理가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에 본원이 된다는 정주나 퇴계와 같은 세계관도 있다. 그렇다면 경약의 세계관은 理氣論과는 무관하다.

3. 本論

여기에서 論하려는 장개빈의 易의 세계관은 『易傳』의 太極一元論에 근거한다. 『易』은 원래 점서로써 저작되었으나 진·한대에 『易傳』이 나오으로써 一元論으로 변형되었다. 『역전』의 「태극생양의」라는 우주 생성론에 이르러 『易』의 강유 음양이원 사상은 변형하였다.

「역유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괘하다」(계사상전)고 한 '생'은 우주의 생성이며 이러한 생성론의 당연한 귀결로써 태극을 實體化하였다. 역의 음양은 그것을 고정화 하거나 실체화하지 아니한 이론이었다. 象이 도리라 할지라도 꼭이 실체화 했다고

는 할 수 없었다. 단지 실체화애로의 경향 혹은 저항을 내포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태극생양의」라 할 때처럼 음양의 실체는 태극이라 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역의 강유이원론과 『역전』의 태극일원론은 근본적으로 변형된 체계이다. 실체를 부정하면 역경의 논리는 역전에 이르러 서법에서 혹은 태극론에서 생성론을 취함으로써 실체론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일원론은 진한의 통일 이론과 관계가 있으므로 계사전이 한초에 성립된 것이라 한 이유는 이러한 사정에서 본 것이다. (유명종, 이문출판사, 중국고대 사상사, 359.)

장개빈은 하나의 점서로서 『易』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생성론의 측면에서 우주존재와 그 변화에 관심이 있었고, 이와 같은 우주생성론은 사물의 존재와 사물의 변화에 관하여 팔괘와 육십사괘와 육효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물의 존재와 만물의 유행과 만물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보다도 『易』이 상세하기 때문에 장개빈은 인간의 바른 모습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이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의학을 『易』의 구조와 그 변화의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易』은 자연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엮여진 듯 하나 실체는 그 변화를 원용하여 인간의 참모습과 그 변화와 유행법칙을 도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장개빈이 의학의 근원을 『易』에서 찾으려 하는 이유이다.

장개빈은 자신의 易學觀에 대하여 『醫易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지와 역.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가 되고 양의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괘가 된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설정되니 귀천의 지위가 이루어지고 동점이 항상함이 있으니 강유가 나누어진다. 방정하여 류로써 모으고 만사는 무리로써 나누어지니 길흉이 생기고 天은 象을 이루고 地는 형체를 이루니 건곤이 지위를 설정하면 역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늘이 신물을 생산하거늘 성인이 그것을 미루어 극진히 하고 천지가 변화하거늘 성인이 그것을 본받으며 천이 상을 드리우며 길흉을 나타내시거늘 성인이 그것을 법으로 삼으며 하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물이 나오거늘 성인이 그것으로 법으로 삼아서, 이에 가까이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 만물에서 취하여 팔괘를 지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성명의 이치에 따르게 하였다. 팔괘가 이루어지니 상이 그 가운데 있고 팔괘에 인하여 그것을 거둬하니 육효가 그 가운데

에 있다. 강유가 서로 이르고 팔괘가 서로 옮겨가니 변화가 그 가운데 있으며 괘효를 해석하고 명령을 하니 동함이 그 가운데 있다.吉凶悔吝은 등에서 생기고 천지 귀신의 덕과 만물 일체의 능함이 삼연히 밝게 들어 나서 역에서 숨을 곳이 없다.

인간과 천지. 위대하도다 사람이 태어남이여!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품부받아 만물의 령장이 되고 천지의 증과 화를 얻어 건과 곤의 조화 발육에 참여한다. 사상은 천에 대응하고 사체는 지에 대응되니 천지의 합벽은 내 몸의 호흡이며 주아의 밀물과 썰물은 내몸의 혈액이 뛰는 것이다. 천의 복두철성은 모든 별의 움직임의 근본이 되며 사람의 일심은 완전한 몸의 임금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천의 기는 곧 사람의 기며, 사람의 몸체는 곧 천의 몸체이다. 그러므로 강철이 말하기를 "사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나에게 말미암지 않으면 다시 누구를 말미암겠는가?"하니 한 생각이 싹 트면 곧 기에 전달됨을 말하는 것이니 정신이 따르고 기에 나타나는 것이 곧 천지 귀신과 더불어 서로 감응하고 소통된다. 그러하다면 천과 사람이 서로 더부는 즈음이 정미롭고 신묘한지라, 진실로 두려워 할 만 하다.

인신과 역. 人身은 작은 천지이고 진실로 서로 일효의 간극이 없다. 지금 그 천지의 이치가 역에 갖추어져 있고 심신의 이치가 역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가? 하물며 천지의 역은 외역이며 심신의 역은 내역이니 내외 외가 어느 것이 친하며 천과 인이 어느 것이 가까우나?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에서 구한 이후에 남에서 구할 수 있으며 안에서 먼저 한 이후에 밖에 들릴 수 있으니 사물 이치의 역은 오히려 완만하게 할 수 있으나 심신의 역은 소홀히 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위에 인용한 경악의 역학관은 심도 있는 강령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지의 역학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개빈은 후학들을 위하여 자신이 터득한 바를 논리적이면서 극히 분석적으로 우리에게 그 진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개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깊은 사색과 궁리에 의하여 그 진의를 깨닫는 것이 요청된다.

그의 『易』의 세계관은 보편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로 나누어진다. 그는 세계의 시원, 소종래, 두뇌처를 음양 이기미분의 일원기로, 현상세계는 팔괘를 기본 요소로 하고 육십사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1) 陰陽二氣未分の氣

위에 열거한 장개빈의 역학관에서 그의 독특처를 고찰하면, 위의 '천지와 역'에서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가 되고 양의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극'은 氣인가 理인가?

"태극은 천지만물의 시원이다. 『태시천원책문』에 적혀 있기를 太虛摩廓하여 肇基化元이라 하고 노자는 '무명은 천지의 시원이며 유명은 만물의 모이다. …… 이것에 말미암아 보편 태허의 시초에는 넓고 텅비어 형상이 없고 무에서부터 유로 生化가 이루어 지기 시작한다. -에서 음양이 화생하니 이 -이 태극이다. 태극이 동정하여 음양이 나누어 진다. 그러므로 천지는 단지 이 동정이며 동정은 곧 음양이며 음양은 곧 태극이다<유경도익 운기상>라고 하고 또

'태허는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그러므로 태허라고 한다'

는 위의 두 인용문에 의하여 주백곤은 『역학철학사』(3권 362)에서 '이러한(장개빈의) 설법은 표면상으로 본다면 太極 無 氣 理를 합하여 -로 여겨서 통합하여 태극이라고 말하나, 실재상으로는 태극으로써 陰陽二氣未分의 통일체로 여긴 것이니 곧 그(장개빈)가 말한 '음양이 곧 태극이고 이것 외에 남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운기상』을 근거로 하여 논한 이 세계관은 『易』의 태극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주백곤이 장개빈 『易』의 세계관 해석이 타당한 명증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氣를 시원으로 하는 세계관이 어떻게 가능한가? 一元氣를 시원으로 하는 장개빈의 경우 太極 無 氣 理를 -로 여겨 태극으로 말하나, 실은 그 태극이 음양이기미분의 통일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太極 無 氣 理는 각각의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기의 속성이 된다. 그러므로 理라 하더라도 그 理는 氣의 條理이며 氣의 속성이 된다. 그러므로 氣가 세계의 본질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유경도익 운기상』에서 '태허의 시초에는 넓고 텅비어 형상이 없고 무에서부터 유로 生化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태허는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그러므로 태허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陰陽未分의 一元氣氣는 물질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텅비어 형상이 없고 無에서 有로 되기 때문이다. 즉 태극은 程朱와 같이 理로 보는 것이 아니라, 氣에 속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醫易義』에서

'상세히 그것을 말하면, 이른바 일(-)은 '역에는 태극이 있다'는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며 무극은 즉 태극이니,

象과 數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치는 이미 갖추어 저서 만물이 생하게 되는 조화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오행이 이르지 아니한 곳이며 부모가 태어나지 아니한 앞"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득하고 드러나지 않으나 그 속에는 精氣가 있고 그 정기는 심히 진실 되니 그 속에 진실 됨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시초이다. 허에 인하여 기가 조화 생성 하고 기에 인하여 형체를 창조하니 선천 일기에 비롯함이 된다. 의사가 되어 이것을 분명히 알면 生生化化가 모두 근원이 있으니 즉 우리가 있지 아니한 그 전에 이것에 인하여 부모가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필수 되는 형상을 짐쳐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오행이 이르지 아니한 곳,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바로 陰陽未分의 氣를 뜻하며 이 氣는 물질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니, 카오스는 아닌 것이다. 또 '虛에서 氣가 生하고 氣에 인하여 형체를 창조하니 先天一氣에서 비롯한다'고 하니, 이것은 소강절의 氣論에 근거한 것이다. 현상세계에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先天一氣'에서 시작되니 '先天一氣'는 사물의 앞에 이미 있는 氣이고 이 氣는 陰陽未分의 一氣이다. 결국 세계 조화의 근원을 장개빈은 물질 의미가 없는 陰陽二氣未分의 一元氣임을 천발한 것이다.

理에 관한 『醫易義』의 뜻은 어떠한가? 위 인용문에서 '태극은 상과 수가 갖추어지지 않으나 이치는 이미 갖추어 졌다'하고 또 '아득하여 드러나지 않으나(도를 뜻함) 그 속에는 精氣가 있고 그 精氣는 심히 진실 되니 그 진실된 속에 진실 됨이 있다'고 하였다. 앞 구절은 理를 주로 하여 말하여 程朱의 태극론 같이 理가 『易』의 세계의 근원자와 같아 보이나 뒤 구절은 『노자』의 이십일장으로써 정기의 진실 됨이 곧 진실이며, 理는 氣의 條理이며 氣가 세계의 참 근원자라는 것이다. 장개빈은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始初라고 보았다. 즉 세계는 虛→氣→形態로 변화되며 理란 바로 氣의 진실 됨이며 條理이며, 그 一元氣를 보편자로 여기는 듯하다.

2)-1 팔괘와 육십사괘

장개빈 『醫易義』의 세계관에서는 태극 즉 陰陽未分의 氣는 보편자이다. 음양은 현상세계의 유행하는 氣이다.

일반적으로 儒家에서 존재문제를 理氣論에 의하여 설명하나 장개빈은 세계관을 태극에서 二 四 八 十六

三十二 六十四로 변하는 복희육십사괘차서도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관을 전개할 때 그 기본원소는 팔괘이고 완성된 세계는 육십사괘이다.

(1) 一分爲二

장개빈의 역학관에서 '인간과 천지'는 현상세계의 음양 유행과 인간의 태어남을 밝힌 것이다. 장개빈은 『醫易義』에서 현상세계를 복희육십사괘차서도에 의하여 설명한다. '一分爲二'는 즉 '太極生兩儀'와 같은 의미이다. 음양미분의 氣가 一이며 一에서 二 즉 음양, 兩儀가 생성된다. 이 二에 대하여 장개빈은

'이른바 一이 나누어져 二가 된다는 것은 兩儀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태극이 동하면 양이 되고 정하면 음이 되니 天은 動에서 생기고 地는 靜에서 생겨 양은 음의 짝이 되고 음은 양의 기초가 된다. 形體로써 말하면 天地가 되고 運用으로 말하면 乾坤이 되고 道로써 말하면 陰陽이 된다. 한 번 정하고 한번 동하여 서로 뿌리가 되어 음으로 나누어지고 양으로 나누어짐에 양의가 확립되어 이것이 象이 있게 되는 시발점이다. 형체에 의지하여 기운이 자리 잡고 기운에 의하여 정신이 변화하여 후천의 體象의 시발점이 된다. 의사가 되어서 이 이치를 깨달으면 음양과 기혈이 그것에 인해서 純雜 偏正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품부 받은 강유를 무뎠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용문에서, 二는 양의, 음양이다. '形體로써 말하면 天地가 되고 運用으로 말하면 乾坤이 되고 道로써 말하면 陰陽이 된다'는 것에서 건곤, 도는 음양 즉 氣의 속성이다. 음양은 현상세계에 실존하는 기이다. 음양은 현상세계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요소이며 그 정기가 응결하여 만물만사의 형기가 된다. 형기도 실존한다. 실존하기 때문에 상이 있게 되는 시발점이며 후천 체상의 시발점이 된다. 또 形氣가 있게 되면 그 形氣는 차등도 있게 된다. 그 차등을 이해할 때 그 사물의 純駁 偏正과 剛柔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장개빈은 『醫易義』에서 음양을 현상세계 사물의 근본으로 여기지 않고 팔괘를 기본 요소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이 신물을 생산하거늘 성인이 그것을 미루어 극진히 하고 천지가 변화하거늘 성인이 그것을 본받으며 천이 상을 드리우며 길흉을 나타내시거늘 성인이 그것을 법으로 삼으며 하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굴이 나오거늘 성인이 그것으로 법으로 삼아서, 이에 가까이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 만물에서 취하여 팔괘를 지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성명의 이치에 따르게 하셨다. 팔괘가 이루어지니 상이 그 가

운데 있고 팔괘에 인하여 그것을 거둬하니 육효가 그 가운데에 있다. 강유가 서로 이르고 팔괘가 서로 옮겨다니 변화가 그 가운데 있으며 패효를 해석하고 명령을 하니 동함이 그 가운데 있다.吉凶悔吝은 동에서 생기고 천지 귀신의 덕과 만물 일체의 능함이 삼연히 밝게 들어 나서 『易』에서 숨을 곳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음양과 사상은 팔괘나 육십사괘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팔괘나 육십사괘에 포함된다.

(2) 二分爲四

음양이 나누어져 사상이 된다. 경악은 『醫易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른바 二가 나누어져 四가 된다는 것은 양의가 사상으로 붙어난 것이니 動하는 시초에는 양이 살아나고 동함이 끝나면 음이 살아나며 靜하는 시초에는 柔가 살아나고 정함이 다하면 剛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天의 사상이 되고 태강 태유 소강 소유가 地의 四體가 된다. 이목구비는 천에 대비되고 혈기골육은 지에 대응된다. 의사가 되어서 이것을 분명히 알면 양의 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으니 곧 무릇 사람은 양인 것 같으나 양이 아니며 음인 것 같으나 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에 인하여 진실과 거짓 거슬리는 것과 순리적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서로 간직하면서 숨고 나타나는 것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四象은 음양과 강유의 四象을 뜻한다. 太少陰陽은 음양의 가운데 또 음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은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다. 天四象은 일월성진이니, 태양은 日이고 태음은 月이고 소양은 星이고 소음은 辰이다. 太少剛柔는 강유의 가운데 또 강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강 태유 소강 소유가 있다. 地四體는 水火山石이니, 태유는 水이고 태강은 火이고 소유는 土이고 소강은 石이다. '이목구비는 천의 사상에 대비되고 혈기골육은 지의 사상에 대응된다'

'이분위사'에서 장개빈이 강조했는 것은 음양의 변화의 인식이다. 양의에서는 음양변화만을 이해하면 되지만 사상에서는 음양의 변화가 양중양 음중음 음중양 양중음으로 복잡하게 구성 된다. 팔괘는 더욱 복잡하게 변화한다. 즉 그 변화는 양중양중양 음중음중양과 같이 복잡하다. 육십사괘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 변화는 양중양중양중양중양중양중양이란 복잡한 상태로 사물이 존재하게 된다. 음양은 이와 같은 횡적인 변화를 하면서 또 종적인 변화를 한다. 종적인 변화란 노음노양의 효가 변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할 때

그 사물의 본체와 운용의 眞僞 順逆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위이 이분위사 사분위팔 팔분위십육의 형식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의 일이며 단지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전개하여 보면 그러하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음양이 극진히 분화된 것으로 사물을 고찰할 때 가장 그 사물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극치가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인 것이다. 장개빈은 육십사괘의 극치에서 사물을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비록 음양이 이미 내경에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변화는 주역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물을 파악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나 넓은 지식만으로 그 변화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易』의 인식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격물치지에 의하여 활연관동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그 변화를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3) 四分爲八

경악은 『醫易義』에서

'이론바 사가 나누어져 팔이 된다는 것은 사상이 팔괘로 불어난 것이니 건일 태이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을 말한다. 건은 건실함이며 곤은 순종하는 것이며 진은 활동하는 것이며 손은 들어가는 것이며 감은 함몰하는 것이며 이는 걸리는 것이며 간은 그치는 것이며 태는 기뻐하는 것이다.

복희 팔괘는 음양의 체상을 나누었고 문왕팔괘는 오행의 정미함을 밝혔다. 의사가 되어서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비야 흐로 음양의 속에 다시 음양이 있고 강유의 속에 다시 강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待화의 體와 消息의 기틀과 交感의 신묘함과 錯綜의 뜻이 밝게 이미 갖추어졌으니, 곧 무릇 사람의 性理와 神機와 形情과 病治를 그것에 인하여 강령을 얻고 많은 변화에 회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팔괘는 육십사괘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팔괘가 중첩하여 육십사괘가 이루어진다. 팔괘의 차례는 건일 태이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이다. 팔괘가 體用의 원리에 의하여 인식되어 지기도 한다. 정·주의 학적 체계에서 보면, 형체로 말하면 天이며 본질 즉 體는 乾이며 用은 건실함(健)이다. 乾은 태극이며 健은 乾이 밖으로 발현할 때에 드러나는 德이다. 즉 일(事)에 드러나는 덕이다. 그러나 장개빈의 음양미분의 일원기에

서는 天, 乾, 健, 德은 모두 음양으로 통일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팔괘의 나머지 부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坤은 순종하는 것(順)이며 震은 활동하는 것(動)이며 巽은 들어가는 것(入)이며 坎은 함몰하는 것(險)이며 離는 걸리는 것(麗)이며 艮은 그치는 것(止)이며 兌는 기뻐하는 것(悅)이 된다.

氣論에서 본다면, 乾은 天의 象이며 天이 운행되는 象이 또 健이 된다. 이러한 상은 天 乾 健은 모두 氣의 속성이 된다. 음양이 사상 팔괘로 발전함에 따라 陰中陽 陽中陰의 구성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지게 된다. 그리고 음양변화의 조리와 음양의 對待 消息 交感 錯綜의 뜻이 갖추어 저서 음양의 변화에 대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사람의 性理와 神機와 形情과 病治를 그것에 인하여 강령을 얻고 많은 변화에 회통할 수 있게 된다.'

음양 또는 四象 또는 『易』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발전하는 의미도 있는 듯하다. 역을 중심으로 한의학이 전개될 때, 음양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보다 다른 특징은 『易』은 팔괘를 기본요소로 하여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에 이르는 무궁한 변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陰陽 四象 五行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六十四

경악은 『醫易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팔괘로부터 사상이 서로 교류·중첩하여 십육괘를 이루고 팔괘가 상량·중첩하여 육십사괘가 된다. 내괘와 외괘를 나누어서 육효에 짝지우고 육과 구를 推廣하여 蒼草의 수를 완성하였다. 인물이 이것에 말미암아 크게 완성하고 萬象이 이것에 인하여 모두 갖추어 진다.'

팔괘가 相蕩重疊하여 육십사괘가 된다. 육십사괘는 만물 만사의 상이 된다. 한괘 한괘는 육효에 의하여 그 변화됨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물 만사의 粹駁과 偏正 등과 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圓圖를 열람하면 즉 그것의 정미로운 뜻을 알 수 있다. 이 圖가 비록 萬有를 본뜬 것이나 더욱 사람의 일신에 절근하다. 그러므로 선천도는 증앙을 둘러싼 것이니 증앙을 둘러싼다는 것은 天의 象이다. 육십사괘가 밖을 둘러싸서 음양이 서로 변화하는 이치를 밝혔고 태극이 그 가운데서 운행되니 心이 一身을 주재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乾이 南, 坤이 北이 된 것은 首와 腹이 위와 아래가 되는

것을 본뜬 것이다. 離가 東坎이 西가 된 것은 耳目의 좌우를 본뜬 것이다. 復卦에서부터 同人卦까지는 內괘 震離의 지위에 해당하니 음중의 少陽의 십육괘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육세가 된다. 臨卦에서 乾卦에 이르는 것은 內괘 兌乾의 지위에 해당하고 양중 태양의 십육괘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삼십이괘에 해당된다. 姤卦에서 師卦에 이르는 것은 內괘 巽坎의 지위에 해당되고 양중 소음의 십육괘이며 遯卦에서부터 坤卦에 이르는 것은 內괘 艮坤의 지위에 해당되며 음중 태양의 십육괘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십사 세에 해당된다. 陽이 子에서 생겨서 午에서 극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復卦에 적혀 있기를 “天根”이라 하였다. 乾卦에 이르러 삼십이 괘가 되어 앞의 一世에 해당하고 陰은 子에서 생겨서 子에서 극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姤卦에 적혀 있기를 “月窟”이라 하였다. 坤에 이르러서 삼십이괘가 되어 뒤의 반생에 해당한다. 앞의 一世는 復卦의 一陽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하고 첨가하여 乾卦에 이르러 양이 성대함이 이미 극진하게 되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는 것을 본뜬 것이다. 후의 반생은 姤卦의 一陰에서 시작하여 점차 소멸하고 감소하여 坤卦에 이르러 양이 소진하여 마치게 되니 사람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늙게 되는 것을 본뜬 것이다.

복희 육십사괘 圓圖는 ‘육십사괘가 밝을 둘러싸서 음양이 서로 변화하는 이치를 밝혔고 태극이 그 가운데서 운행되니 心이 一身을 주재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십사괘는 天人一理와 首腹耳目의 형체의 위치와 인간 일생의 쇠퇴변화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육십사괘 내에 이미 음양이론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四象의 이론도 육십사괘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의 기본요소는 팔괘이며 그 모든 상과 이치를 드러내는 것은 육십사괘가 된다.

종적으로 고찰하면 象은 초효에 있어서 그 건괘는 子에서 극진하게 되고 곤괘는 子에서 극진하게 된다. 동지·하지의 두 時令에 해당하여 천지의 중앙이 되며 좌우가 판별된다. 좌는 상승함을 주로 하고 우는 하강을 주로 한다. 상승하면 양이 동남에 있고 춘하가 생기게 되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이 점점 자라는 것에 대응하며 하강한즉 음이 서북에 있고 추동이 수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이 점점 쇠퇴하는 것에 대비된다.

횡적인 면을 고찰하면 상은 二효에 있어서 그 離卦는 卯에서 극진하게 되고 坎卦는 酉에서 극진하게 되니 춘분·추분에 해당하며 음양의 중앙(半)이 되며 상하로 나누어진다. 위는 양이 되고 아래는 음이 되니 양은 즉 해가 묘에서 뜨며 낮에 깨어 있음에 대응되며 음은 즉 해가 유에서 지니 밤에 잠 잘 때에 대응된다. 즉 이 하나의 도는 天人의 신묘함과 運氣의 이치가 갖추지 않음이 없게 된다.

육십사괘의 원도를 종형으로 분석하여 파악하면 卦氣說의 뜻도 있는 것이다. 하지 동지의 시령과 춘분 추분의 절기에서 음양 소장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그 도는 天人의 관제와 운기의 이치를 유추하여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종적으로 분석하면 오른쪽의 삼십이괘 초효가 양이며 왼쪽의 삼십이괘의 초효는 음효이다. 이것은 ‘일분위이’의 二 즉 兩儀의 의미가 있다. 다시 횡적으로 분석하면 육십사괘의 초효와 둘째효를 중심으로 볼 때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사상으로 분리된다. 육십사괘의 첫째효 둘째효 셋째효를 중심으로 볼 때 팔괘가 되며, 여섯효를 중심으로 볼 때는 육십사괘가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분위이 이분위사 사분위팔과 팔이 상당 중첩하여 육십사괘가 되는 것이 각각 다른 때의 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시적인 일이며 육십사괘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음양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의학이론이라 하더라도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내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 方圖를 열람하면 그 뜻이 地를 본뜬 것이다. 건괘가 서북에서 시작하고 곤괘가 동남에서 극진하니 천은 서북에서 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원도의 양은 동남에 있다. 지는 동남에서 가득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방도의 강한 것은 서북에 있다. 이것은 모두 복희의 괘이다. 또 문왕팔괘가 位가 같지 않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복희팔괘는 자연의 象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건이 위, 곤이 아래, 離가 좌, 坎이 우가 된다. 문왕 팔괘는 하도의 수에 합쳐된다. 그러므로 화가 南, 수가 北이며, 木이 東 숲이 서쪽이다. 이 구절은 方圖로부터 이하는 河洛의 수의 뜻에 합쳐된다. 方隅와 氣數 두 이론에서 상세하다.

복희 팔괘의 원리는 복희 육십사괘 圓圖에서도 고찰할 수 있음은 앞에서 고찰한 바이다. 육십사괘의 아래에서 셋째효까지 음양 사상 팔괘가 생겨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의 팔괘가 생겨난다. ‘건 태 간 곤의 부분은 天의 四象이며 이 진 손 감의 부분은 地의 사상이다.’(『주역』 복희 육십사괘 방위도설) 이와 같다면 팔괘를 天의 사상과 地의 사상이 합하여진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천의 사상이란 氣 즉 음양이며, 지의 사상이란 形 즉 강유를 뜻한다. 이것을 좀더 넓혀 보면 육십사괘의 원도와 방도가 될 듯하다. 즉 원도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천

지 만물의 형기와 원리 그리고 쾌기설 등등의 이치가 있지만 天의 사상과 地의 사상의 이치도 내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天의 사상 속에는 地의 사상이 내함 되어 있고 地의 사상 속에는 天의 사상이 내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형식은 양중유음 음중유양의 형식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치를 함께 함유하여 천지만물의 형상과 조리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상위의 기호가 복희 육십사괘의 원도와 방도인 것이다. 이것이 만사만물의 象이며 인간도 이 원리에 의하여 세계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다. '인신에 바탕하면 천지는 형체이며 건곤은 성정이며 음양은 혈기이다. 좌우에 근원을 만나 섬호(纖毫)의 차이도 없으니 상세히 그 도를 구하면 그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여 天人의 형기와 道도 그것과 같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爻象으로써 말하면, 천지의 도는 六으로써 節을 삼고 삼재가 들이니 이것이 六爻이다. 六奇 六偶는 이것이 十二이다. 그러므로 天에는 십이원이 있고 사람에게는 十二藏이 있고 천에는 십이회(會)가 있고 사람에게는 十二經이 있고 천에는 十二辰이 있고 사람에게는 십이절(節)이 있으니 이것을 안다면 營衛가 주류하는 것과 經絡의 표리의 象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육절기의 상이 三才가 중첩한 육효이다. 육절의 원리와 육효의 이치가 같다. 효의 六奇(건괘 육효) 六偶(곤괘육효)가 십이월, 십이장, 십이회, 십이경, 십이진, 십이절의 이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인신의 기관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존재한다면 그 운용, 즉 營衛가 周流하는 것과 경락의 표리의 상이 그 존재를 體로 하여 그 운용으로 드러나게 된다

2)-2 人身

현상세계 만물의 象이 육십사괘로 구분된다. 한 사물이 갖고 있는 모든 이치도 육십사의 상으로 집약되고 육십사의 상은 태극으로 통일된다. 이것은 마치 天, 즉 세계의 근원자와 인간은 하나의 원리로 통일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존재원리는 육십사괘의 상으로 규명되고 인간의 도덕원리도 육십사괘의 상으로 규명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육십사괘로 해결이 가능하다. 장개빈은 의학에 관한 문제를 『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臟象으로 말하면 초육으로부터 상육에 이르는 것은 음이 되고 臟이 되니 초육은 命門이며 육이는 신이며 육삼은 간이

며 육사는 비이며 육오는 심이며 상육은 패이다. 초구에서 상구에 이르는 것은 양이며 膈가 되니, 초구는 방광에 해당하며 구이는 대장이며 구삼은 소장이며 구사는 담이며 구오는 위이며 상구는 삼초에 해당한다. 이것을 안다면 장부의 음양과 그것의 고하의 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초육이 명문이 되며 상구가 삼초에 해당시킨 것은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 초육은 명문, 육이는 신, 육삼은 간,

≡ 육사는 비, 육오는 심, 상육은 패.

≡ 초구는 방광, 구이는 대장, 구삼은 소장,

≡ 구사는 담, 구오는 위, 상구는 삼초.

형체로써 말하면 乾은 머리이니 양은 높고 위에 있기 때문이다. 坤은 腹이 되니 음은 넓고 만물을 용납하는 것이다. 감은 푸이니 양이 안에서 듣는다. 離는 目이니 양이 밖에서 밝다. 쾌는 입이 되니 터트려 위에서 열린 것이다. 巽은 股가 되니 두 개를 드리워 느려 트린 것이다. 간은 수가 되니 양이 앞에 있는 것이다. 震은 足이 되니 강이 아래에서 동하는 것이다. 天은 서북에서 풍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목의 왼쪽은 오른쪽 보다 밝고 땅은 동남이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족의 오른쪽은 왼쪽 보다 강하다. 이것을 알면 人身의 體用의 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生育으로 말하면, 천지의 기운이 어림에 만물의 조화가 깨끗하고 올바르며 남성적인 정기와 여성적인 정기가 相凝하여 만물이 조화 발생한다. 천은 높고 지는 낮으니 건은 부이며 곤은 모이다. 건의 도는 남성의 원리가 되고 곤의 도는 여성의 원리가 되어 진감간은 세 개의 남성적인 것이 되고 손이 태는 세 개의 여성적인 원리가 된다. 지식의 강약을 알고 저한다면 진손은 전진하는 것이고 간태는 물러나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脈息의 징후를 변별하고 저 한다면 乾健은 東에 있고 坤順은 서북을 향한다.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란다면 감을 길러서 이궁에 채우고 태를 빌려서 乾하로 삼아야 한다. 묘종 뿌리는 법을 밝히고저 한다면 천시와 지리가 虧盈하는 것이 과연 음양의 기운에 말미암는 것이며 동지에 처음으로 양이 강하니, 음이 이긴다면 모름지기 회피해야 한다. 이것을 안다면 책임하여 교감하는 도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으로 말하면 北 - 水는 나의 精이다. 그러므로 "신은 정기를 간직한다"고 하였다. 南 - 二 火는 나의 정신(神)이니 그러므로 "心은 神을 간직한다"고 하였다. 東 - 三 木은 나의 魂이니 그러므로 "간은 혼을 간직한다"고 하였다. 西 - 四 金은 나의 魄이니 그러므로 "패는 백을 간직한다"고 하였다. 中 五 土

는 나의 意이다. 그러므로 “비는 뜻을 간직한다”고 했다. 혼백의 음양을 알려고 한다면 정신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木과 火는 同氣인 까닭으로 정신(神)과 혼은 東南에 간직하고 二八과 三七이 동일하게 十이 된다. 金과 水는 근원이 같다. 그러므로 精와 魄은 서북에 간직하니 一九와 四六이 동일하게 十이 된다. 土는 四氣를 統攝하니 그러므로 뜻(意)은 홀로 중앙에 있게 된다. 그 數는 오직 五이고 臟腑의 오행의 象이 그 가운데에 있다.

動靜으로 말하면 양은 동을 주로 하고 음은 정을 주로하며 天은 둥글(圓)어서 動하고 地는 방정(方)하여 靜하다. 정은 동하는 기반이고 동은 정하는 기틀이다. 剛과 柔가 옮기는(推盪) 것은 「역」의 동정이고 음양이 乘降하는 것은 氣의 동정이고 形氣의 消息은 物의 동정이고 주야에 興廢하는 것은 身의 동정이다. 그 동정을 상재히 구하고져 한다면 음양을 정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동이 극진하여 진 것은 정으로써 진압하여야 하고, 음이 너무 높이 올라간 亢은 양이 말아야(勝) 한다. 病 治 脈 藥은 동의 가운데 정이 있음과 聲 色 氣 味가 있음을 알아야 하니 당연히 柔 속에 강을 간직함을 알고 강 유 동 정 의 정 밀 하 고 은 미 함 을 알 면 의 학 중 에 응 용 하 는 현 묘 함 은 사 고 능 력 이 그 반 은 이 루 어 지 는 것 이 다.

昇降으로 말하면, 양은 승을 주로 하고 음은 강을 주로 한다. 승은 양이 생육하는 것이며 강은 음이 사멸(死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日)가 자(子)에 있음에 한 밤중(夜半)에 바야흐로 승하기 시작한다. 승하게 되면 생육으로 향하고 海內의 땅이 모두 밝게 된다. 해가 午에 있을 때는 오가 지나면 하강하게 되니 하강하면 사멸을 향하게 된다. 만물은 모두 鬼니 사생의 기틀은 승강이다. 승강의 요점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려야 할 때 마땅히 울리지 않으면 巽(山地剝) 음의 정성스러운 나아감을 방해하게 되고, 상승하고 하강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복(地雷復) 양의 시생(始生)을 복돋우는 것이다. 밖에서 양이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風地觀)에서 시작되고 復에서 양이 접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임(地澤臨)을 향하여 진행되니 이 가운데 자연이치의 핵심이 있으니 그 최상은 形情 氣味이다. 消長의 도리를 밝히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기틀으로써 말한다면 심중에 있는 것은 정신(神:靈也)이고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기(機:天真)이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것(寂然不動)은 정신이고, 외물에 감응하여 드디어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感而遂通)은 機이다. 서리어 한 마음이 된 것은 정신이고 홀어 저서 만 가지로 다른 것은 기이다. 이 것을 안다면 그 시발점을 값있는 근원으로 하여 곧 바로 그 마침을 살피는 것이 나의 신이다. 사륙함을 홀어 버리는 것이 장석(匠石:장자 서무기)의 칼날과 같고 도끼날 경계하기를 영인(郢人)의 코와 같이 하는 것(忌器若郢人之鼻:장자 서무기)은 나의 기이다. 가능함을 알고 나아가며

어려운 것을 알고 물러나는 것은 나의 정신이다. 빠르고 느린 것은 輪扁(輪扁:장자 천도)의 손과 같고 가볍고 무거운 것은 庖丁의 칼과 같은 것은 나의 기이다. 정신과 기가 서로 의지하고 공경한다. 그러므로 정신은 주장하는 것이 있고 기는 따르는 바가 있으며 정신은 결정하는 바가 있고 기는 판단하는 바가 있으며 정신은 기를 주장함이 있고 기는 정신이 부리게 된다. 정신을 알고 기를 알아서 그것을 지켜서 응용하니 이것은 즉 의사의 정신이다.

屈伸으로써 말하면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며 젊음이 가면 쇠퇴함이 오며 바름이 가면 사사로움이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쉬움이 도와서 생기며 옮고 그름이 서로 약하게 하며 강유가 서로 제재하며 여름과 숲이 서로 석이지 못한다. 이것을 안다면 미미한 것은 극심한 것의 기틀이며 상대함은 쇠퇴함이 나아가는 것이다. 큰 것은 작은 것에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먼 것은 가까운 것에 말미암아 두루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편안할 때 위험하게 되는 것을 잊을 수 없고 다스려 질 때 어지러워짐을 잊을 수 없으며 깃털을 쌓아서 배를 갈아 앉게 할 수 있고 가벼운 것이 여럿이 되면 主軸을 꺾을 수 있다.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가벼이 할 수 없고 소수의 사람이라고 만홀히 할 수 없으며 서로 調和하고 서로 相濟하여야 하니 성공하는 도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변화으로써 말하면 사물이 化生 하는 것을 化라고 하고 만물이 극성 할 때까지를 化라고 한다. 음이 변하여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변하여 음이 될 수 있다. 단지 이 한 두 가지는 서로 감응하여 생성하는 것이니, 氣는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고 사물은 그 기가 모일 때에 변화의 소지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양이 처음에는 따뜻하고 양이 극진하면 열이 나고 음이 처음에는 서늘하고 음이 극진하면 차갑다. 따뜻하면 만물을 나게 하고 열은 만물을 자라게 하며 서늘하면 만물을 거두어 드리고 추우면 만물을 수살 하니, 변화의 상대함이 이에 드러나게 된다. 이강(夷羌)의 오락제 족을 부모로 하고 만묘(蠻苗)의 남녀와 같이 그대가 그 형상을 닮음이 고부랑 수염 짧은 다리에 이르러서는 은행나무에 복숭아를 접하고 배나무에 자두를 접하여 그 열매가 반드시 이상하고 단 것이 많고 신 것이 적게 된다. 대저 음이 양을 인태하고 유가 강을 인태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인태하며 圓으로써 方을 인태하며 水로써 火를 인태하고 紫로써 黃을 인태하며 曲으로써 直을 인태하고 短으로써 長을 인태하게 된다. 이 이치를 안다면 甘蓐를 화수하게 할 수 있으며 누린내와 향기를 화평하게 할 수 있고 경위를 나눌 수 있고 宮商을 조화롭게 하게 하고 蛇蝎이 될 수 있고 鸞鳳이 될 수 있고 堯桀이 될 수 있고 彭殤이 될 수 있다. 거의 흉중이 大象에 동화되어 응용을 폭넓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여 설파한 것을 중

합하면 복희육십사괘의 圓圖와 方圖의 내용을 분석하여 人身에 적용한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원도와 방도의 道를 默識心融하여 거기에서 천지의 도를 터득하고 人身의 도에 대하여도 자득하여 그 바름(正)을 알고 그 象을 알고 그 體用 등등의 道를 알아서 음양의 변화를 살핀다면 바른 한의학의 이해를 자부할 수 있다. 장개빈의 이러한 경지는 『역』의 원리를 터득하여 의학에 배합함으로써 『의역』의 학적 체계의 기초를 세우고 한 의학을 논리화하였다.

4. 결론

1. 상고로부터 한의학이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며 경험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황제내경』은 음양 오행이 중심이다.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각각 깨달은 바가 있는 것으로 한의학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래서 『의학입문』이라는 저서가 그간의 장점을 모아 한의학의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업적이 한의학에 이바지한 공적은 지대하다.

장개빈의 『醫易義』에 대한 학적 업적은 한의학을 음양 오행의 체계에서 『易』의 체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음양 오행이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 중심이론이 되었으나 그 변화면에서 더 광대한 『易』의 이론을 도입한 것은 한의학의 중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원 명 시대의 사대 의가와 수많은 의가가 뛰어나며 금원 명 四家뿐만 아니라 많은 의가들이 『易』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역의』에서 수많은 측면으로 분석하여 『역』의 이론이 증명하려고 하나 실제로는 『역』에 접근할 수는 없다. 『역』의 원리의 터득은 사색과 궁리에 의하여 모든 사물의 이치를 격물치지를 하여 활연관통의 경지의 자기개발이 있는 후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개빈의 참 뜻을 읽을 때 『의역의』의 존재가 빛날 것이다.

2. 장개빈은 본체론에 대하여서는 『류경』의 주석과 『유경도익』의 『운기상』과 『의역의』등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경약의 본체론은 '萬은 一에서 생성된다'고 하고 '일

은 역유태극이다'라고 하고 '음양은 곧 태극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一, 즉 태극은 氣의 속성을 가진다. 一 즉 태극은 '自無而有하게 된다'고 하여 물질의 성질은 없는 陰陽二氣未分의 一元氣가 보편자이다. 이 음양이기미분의 일원기를 세계의 본원으로 여기는 듯 하다.

현상세계에 관하여는 복희육십사괘 차서도의 음양 변화로써 설명하고 있다. 一, 즉 음양이기미분의 일원기에서 음양이 생기고, 이분위사 사분위팔 육십사로써 만사만물의 象을 배속시킨 것과, 그 만사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가장 빼어난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존재하며 그 정기의 진실됨을 따라서 유행하고 변화한다. 우리는 이 존재원리와 유행 법칙을 眞知할 때 眞僞 順逆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고서적

1. 장개빈저/류경도익
2. 목관본 주역
3. 유명종저/중국근세 철학사/이문 출판사
4. 유명종저/중국고대 사상사/이문 출판사
5. 주백근저/역학철학사 중화당